

정약용의 「卜筮通儀」로 파악한 卜筮의 의미

201713198 철학과 강현욱

I. 서론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역학서언(易學緒言)』 중 「복서통의(卜筮通儀)」에서 복서(卜筮)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했다. 「복서통의」는 『주역』이 성립된 이후, 역학(易學)이란 학문체계로 정립된 학설을 논구했다기보다 점(占)의 원형적 형식인 ‘복과 서’에 관한 예법과 의식절차 및 사례, 그리고 복서의 의미에 관해 연구한 책이다.¹⁾ 『주역(周易)』은 『역경(易經)』과 『역전(易傳)』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자(孔子, B.C. 551~B.C. 479)에 따르면, 『역경』의 저자는 상고시대(上古時代)에 복희(伏羲), 문왕(文王, B.C. 1152~B.C. 1056), 무왕(武王, 미상~B.C. 1043),周公(周公, 미상)이다. 『역경』은 복서에서 기원한 점서(占書)이다. 복(卜)은 귀갑점(龜甲占)을, 서(筮)는 시초점(蓍草占)을 나타낸다. 이는 천명(天命)을 받는 정성스러운 예식이었다. 복서 중 ‘서’인 시초점은 수학적 연산으로 괘효(卦爻)를 얻는데, 『역경』은 그 괘효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한 책이다. 즉 『역경』은 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서는 복의 대체재로 등장한 만큼, 『역경』에는 복의 영향도 존재한다. 따라서 『역경』의 연원에 대해 말할 때 복서를 함께 탐구해야 한다.

점서는 고대인이 신성시하는 예식이었던 만큼 『주역』 안에는 당대 인류의 정성과 지성이 담겨있다. 특히, 오늘날 의미를 상실하다시피 한 점(占)과 달리, “임금 앞에서 점대를 거꾸로 하거나 귀갑을 기울이면 주살하였다”²⁾고 할 정도로 고대인은 복서를 중요시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복서가 당시 지니는 역사적 위상과 그 변천에 있어서 가치를 탐구하여 『주역』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쌓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서의 방법과 사례, 그리고 의미를 정리한 정약용의 「복서통의」를 참고하여 복서에 대해 이해하겠다.

II. 복서의 연원

귀갑점은 은(殷)나라 말기에 이미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가 잡힌 오래된 점법(占法)이다. 귀갑점은 거북의 등껍질이나 배껍질을 불로 가열해 갈라지는 형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그 후 길흉을 판단한 것과 그 결과를 갑골 무늬 옆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복사(卜辭)이다. 그리고 복인(卜人)은 이 복사가 실제로 효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험사(驗辭)이다. 하지만 점치는 용도로 사용할 거북의 공급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소, 사슴, 호랑이와 같은 동물의 두골(頭骨)이나 견갑골(肩胛骨)로 점을 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周)나라 대에 설시법(揲蓍法)으로 점을 치는 시초점이 등장했다. 대나무나 시초를 이용해 수의 변화를 통하여 괘(卦)를 정했고, 『역경』의 괘상(卦象) 및 괘효사(卦爻辭)에 따라 길흉을 예측했다. 특히 『역전』 중 「계사전」에는 대연수(大衍數) 50을 시작으로 시초를 분리하여 괘

1)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52집, 2018, 4쪽.

2) 『易學緒言』, 「卜筮通儀」, “倒筮側龜於君前, 有誅.”

상(卦象)을 구하는 시초점의 방법이 나와 있다.

그러나 사마천(司馬遷, B.C. 145~미상)의 『사기(史記)』 중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따르면, 하·은·주 삼대는 거복으로 점치는 방법이 같지 않았고, 사방의 오랑캐들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점을 쳤다.³⁾ 즉 귀갑점은 자의적이었고 우연성에 의존한다. 반면, 시초점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역수(易數)를 활용한다. 그리고 효(爻)와 괘(卦)를 얻고 『역경』에 기록된 괘효사로서 점의 결과를 해석했다. 이것은 형상을 중시하던 거복점의 추상적인 점법을 탈피하여 수에 기초한 객관적인 점법으로의 변화로, 수리적 세계관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Ⅲ. 「복서통의」 속 복서의 사례

정약용은 역수(易數), 역상(易象), 역리(易理), 역도가 『주역』의 경의(經義)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수와 역상, 그리고 역리에 모두 정통한 학자였다.⁴⁾ 정약용은 「복서통의」에서 역대의 중국 문헌들을 탐구하여 복서의 사례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서의 의미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먼저 정약용은 복과 서를 치는 각각의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정약용에 따르면 임금을 옹립하는 것, 넓은 봉토를 정하는 일과 같은 큰일과 국가의 큰 천도, 군사의 큰 움직임 같은 작은 일, 그리고 군사의 일과 상사(喪事)를 귀갑점 쳤다.⁵⁾ 이 외에도 질병에 관한 점, 물과 가물에 관한 점, 택일의 점, 일월에 관한 점, 잉태와 출산에 관해 점칠 때 귀갑점을 시행했다.⁶⁾ 한편, 정약용은 『주례(周禮)』 중 「서인(筮人)」, 「태복(太卜)」, 「사관례(士昏禮)」, 「위풍(衛風)」과 『좌전(左傳)』의 사례를 모아 시초점을 치는 경우를 정리했다.⁷⁾ 시초점은 관직을 정하거나, 제후를 세우거나, 아내를 맞이하고 시집보내거나, 빈객을 세우고 시동을 세우거나, 뭇자리를 정하는 점 등에 사용하였다.⁸⁾ 반면, 복서를 함께 점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은 임금을 옹립하는 점, 제사의 점, 일월에 관한 점, 잉태와 출산의 점, 장지를 정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⁹⁾

예를 들어 「복서통의」에는 시초점의 구체적인 사례로, 사당 문에서 치르는 관례(冠禮, 성인식)에 대하여 “시초점을 치는 사람은 함께 동쪽을 보고 려점(旅占)을 마치고 나서 나아가 길함을 고한다. … 만일 불길하면 10일 후에 시초점을 치되, 처음의 의식과 같게 한다.”¹⁰⁾라고 적혀 있다. 이 외에도 「복서통의」는 ‘망자의 못자리를 정하는 시초점(士喪筮禮)’을 치는 방법이나 귀갑점을 쳐야 하는 경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사당 문에서 치르는 관례는 시초점은 한 번

3) 『史記』, 「太史公自序」, “三王不同龜, 四夷各異卜, 然各以決吉凶.”

4) 이난숙, 앞의 글, 6쪽.

5) 『易學緒言』, 「卜筮通儀」, “凡國大貞, 卜立君, 卜大封, 則眡高作龜. 凡小事, 涖卜. 國大遷, 大師, 則貞龜. 凡旅, 陳龜. 凡喪事命龜. 【周禮·春官】”

6) 이난숙, 앞의 글, 25쪽.

7) 『易學緒言』, 「卜筮通儀」, “周禮·筮人 : “九筮, 八曰巫參.” 【鄭玄云: “筮御與右.”】 此立官之占也. 周禮·太卜 : “大封則眡高作龜.” 【此封建】 周禮·筮人 : “九筮, 三曰巫式. 【筮制作法式】 五曰巫易. 【筮所改易之事】” 此建侯立法, 皆有占也. 士昏禮, 問名曰: “某既受命, 將加諸卜.” 納吉曰: “某加諸卜, 占曰吉.” 【出〈記〉文】 〈衛風〉: “爾卜爾筮, 體無咎言.” 【此〈氓〉詩】 左傳, 晉獻公筮嫁伯姬. 史蘇占之, 曰: “不吉.” 【僖十五年】 崔杼欲娶棠姜, 筮之. 陳文子曰: “不可娶.” 【襄二十五年】 此婚嫁之占也.”

8) 이난숙, 앞의 글, 25쪽.

9) 이난숙, 앞의 글, 25쪽.

10) 『易學緒言』, 「卜筮通儀」, “書卦, 執以示主人. 主人受眡, 反之. 筮人還, 東面旅占, 卒, 進告吉. … 若不吉, 則筮遠日, 如初儀.”

만 시행한다는 상식과 맞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것이 고대엔 관·혼·장·제(冠·昏·葬·祭) 모두 길일을 점치고 빈객을 점치는 서례(筮禮)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¹⁾ 단, 장례는 빈객은 점치지 않고 길일만을 점쳤고, 혼례는 중요한 일이므로 거복점을 치기도 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재례(再禮)를 행하는 것은 자기 예언적인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대인의 의식과 마음가짐을 보면, 길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을 미루는 방식으로 우환(憂患)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복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정리했다. 정약용에 따르면, 복서를 행하는 방법은 백성보다 앞서서 천명을 품부 받아 활용하려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일이 비록 바를지라도 성패가 쉽게 구분된다면 귀복점 치지 않았다. 이로움이 비록 분명해도 의리가 진실하지 않은 것 또한 귀복점을 치지 않았다. 오직 여러 올바름을 상고하고 비록 바르더라도 그 성패와 행운 또는 불운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을 쳤다.¹²⁾ 추가로 ‘일이 비록 바를지라도’라는 표현을 보면, 애초에 바르지 않은 일은 복서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이 바르더라도 의리가 바르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은 일의 목적이 바르더라도 그 수단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복서는 행위 목적(결과)이 올바르고 행위 주체의 동기도 올바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복서통의」 속 복서의 의미

정약용은 먼저 『예기(禮記)』를 발췌하여 복서의 의미를 정리한다. 그중 「표기(表記)」편에서 공자(孔子, B.C. 551년~B.C. 479년)에 따르면, 옛날 삼대의 명왕(明王)들은 모두 천지의 신명을 섬겼고, 거복점과 시초점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감히 그 사사롭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상제(上帝)를 섬기지 않았다. 이로써 일월을 범하지 않았으며, 복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큰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작은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이 시초점을 쳤다. 밖의 일은 강일(剛日)에 하고, 안의 일은 유일(柔日)을 정해 사용했으며, 복서를 어기지 않았다.¹³⁾ 즉, 고대인들은 점의 결과를 상제의 뜻이라 보고 무조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예기의 기록을 보아 고대의 점이 청명(聽命)의 행위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섬김으로써 상제를 섬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¹⁴⁾ 따라서 정약용이 보기엔 신을 섬기는 마음가짐 없이 사건에 마주하여서야 복서를 치는 것은 성패를 탐색하는 것이니 하늘을 업신여기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¹⁵⁾

한편, 정약용은 『예기(禮記)』중 「곡례(曲禮)」편에서도 복서의 의미를 찾는다. 「복서통의」에 따르면, 복서는 선대 성왕이 백성들이 시일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해 법령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서는 백성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걸 결단하게 하고, 미루는 일을 결정하게 한다.¹⁶⁾ 즉 복서는

11) 『易學緒言』, 「卜筮通儀」, “古者冠昏葬祭, 皆筮日筮賓.”

12) 『易學緒言』, 「卜筮通儀」, “總之, 卜筮之法, 其始也. 稟天命以前民用也. 事雖正而成敗易分者, 不卜. 利雖明而義理不允者, 不卜. 唯考諸義而雖正, 其成敗利鈍有不明者, 於是乎有占也.”

13) 『易學緒言』, 「卜筮通儀」, “子言之: 昔三代明王, 皆事天地之神明, 無非卜筮之用, 不敢以其私褻事上帝. 是以不犯日月, 不違卜筮. 卜筮不相襲也. 大事有時日, 小事無時日, 有筮. 外事用剛日, 內事用柔日, 不違龜筮.”

14) 『易學緒言』, 「卜筮通儀」, “古人事天地神明, 以事上帝. 【《中庸》曰‘郊社之禮, 所以事上帝’, 亦此義】故卜筮以聽命.”

15) 『易學緒言』, 「卜筮通儀」, “今人平居既不事神, 若唯臨事卜筮, 以探其成敗, 則慢天瀆神, 甚矣.”

16) 『易學緒言』, 「卜筮通儀」, “卜筮者, 先聖王之所以使民, 信時日, 敬鬼神, 畏法令也. 所以使民決嫌疑, 定猶豫也.”

본래 통치자가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진(秦)·한(漢) 시대 이후 복서가 사된 술수에 빠져들어 통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한다.¹⁷⁾ 한대의 학자 가의(賈誼, B.C. 313년~238년) 또한 당시 점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재주를 바탕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재물을 빼앗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천한 무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¹⁸⁾ 『예기』 「왕제(王制)」편에서도 귀신, 시일, 복서를 빌어 민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죽였다고 하는데, 정약용은 이것이 바르다고 평가했다.¹⁹⁾ 「왕제(王制)」에 따르면, 죽어야 하는 네 가지 죄는 첫째, 이단사도로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 둘째, 이상한 음악, 의복, 기예, 기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의혹시키는 것, 셋째, 궤변을 하거나 아는 바가 부족한데 꾸미어 대중을 의혹시키는 것, 넷째, 귀신과 시일(侍日), 복서에 의탁해 사람들을 의혹시키는 것이다.²⁰⁾ 즉 복서를 왜곡하는 것은 앞선 세 가지 죄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다. 그리고 앞선 세 죄가 사회를 분열하고 통치를 방해하는 것임을 볼 때, 고대인들은 복서를 왜곡하는 것 또한 동류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기(禮記)』중 「소의(少儀)」 편에서도 복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복서를 칠 때는 두 번 묻지 않으며, 옳은 것인지 사사로운 것인지 먼저 물어보았다고 한다. 옳은 것이면 점을 치고, 사사로우면 점을 치지 않았다.²¹⁾ 즉, 복서를 치기 위해서는 그 의도가 사사롭지 않고 올바른 도덕적이어야만 했다. 정약용은 이 ‘올바름’은 천리(千里)를 헤아려 합하는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사사로움’이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바이고, 「소의」에서 말한 ‘올바름’은 『역(易)』에서 무릇 ‘바름이 이롭다[利貞]’, ‘바름이 길하다[貞吉]’라고 하는 종류의 뜻이다. 나아가 ‘정(貞)’²²⁾은 바른 일이고 옳음에 합당하다.²³⁾

V. 결론

이로써 복서에 대하여 정리하고 정약용의 「복서통의」 속 복서에 담긴 의미를 파악했다. 먼저 복서의 연원과 사례들을 통해 복서의 두 가지 의미를 찾았다. 첫째, 복서는 형상을 중시하던 귀갑점의 추상적인 점법을 탈피하여 수에 기초한 시초점으로 변화했고 이는 수리적 세계관의 구체화, 즉 인류 지성의 발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 고대인은 복서를 반복하여 길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행을 미루는 방식으로 우환을 제거하고자 했다. 따라서 복서는 마음에 위안을 주고 결행에 믿음을 주어 긍정적인 자기에언 효과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복서통의」에서 직접 밝힌 복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첫째, 「표기」에 따르면 복서는 하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받는 청명의 의미이다. 따라서 복서를 치려면 먼저 신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곡례」에 따르면 복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이 통치자

17) 이난숙, 앞의 글, 15쪽.

18) 朱伯崑 저, 김학권 역, 『주역산책』, 예문서원, 2011년, 21쪽.

19) 『易學緒言』, 「卜筮通儀」, “曰: “假於鬼神, 時日, 卜筮以疑衆者, 殺.” 【(王制)者, 漢初所作】 今人立法, 當以 王制 爲正.”

20) 『禮記』, 「王制」, “析言破律, 亂名改作, 執左道以亂政, 殺. 作淫聲, 異服, 奇技, 奇器以疑衆, 殺. 行僞而堅, 言僞而辯, 學非而博, 順非而澤, 以疑衆, 殺. 假於鬼神時日, 卜筮以疑衆, 殺. 此四誅者, 不以聽.”

21) 『易學緒言』, 「卜筮通儀」, “不貳問. 問卜筮, 曰: “義與, 志與?” 義則可問, 志則否.”

22) 여기에서 ‘정(貞)’은 이정(利正)과 정길(正吉) 등에 있는 ‘정(貞)’자로 바른 일, 옳음을 뜻한다.(이난숙, 앞의 글, 16쪽)

23) 『易學緒言』, 「卜筮通儀」, “義者, 揆諸天理而合者也. 志者, 吾心之所之也. 『易』凡云‘利貞’·‘貞吉’之類, 皆是「少儀」之義.”

를 믿도록 하는 통치의 의미가 있다. 「왕제」도 복서를 왜곡하는 것은 사회분열을 야기하고 통치를 방해하는 중죄로 말했다. 셋째, 「소의」에 따르면 복서에는 천리를 헤아려 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복서는 올바른 마음을 갖추고, 올바른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올바른 것의 성패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칠 수 있다. 즉 복서는 세 조건을 만족하는 합당한 것을 예지하는 것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자체가 천리를 헤아리고 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VII. 내 생각

복서에 관해 탐구하며 이를 이해하는 올바른 시야를 갖추게 되었다. 점진다는 행위의 시대적 의미와 무게를 파악하여 차후 『주역』을 이해하는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며 내 지식의 부족함을 느꼈다. 특히 「소의」편에서 복서가 천리를 헤아려 합한다는 정약용의 말은 아직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결론 또한 내 자의적 해석을 적었을 뿐, 이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소의」에서 말한 ‘올바름’은 『역(易)』에서 무릇 ‘바름이 이롭다(利貞)’, ‘바름이 길하다(貞吉)’라고 하는 종류의 뜻이다.”라는 구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거듭하여 나타나는 천명과 천리 개념에 대해 의문이 있다. 고대인은 상제를 섬기며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들었다고 안다. 이 인격천(人格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천(自然天)으로 변화되었다고 알고 있다. 천명 또한 도학(道學)의 시대에 천도(天道)로 표현되고 리학(理學)의 시대에 천리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시대별로 『주역』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이러한 천(天)관념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복서통의」에서 정약용이 천명이 아닌 천리를 말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 관념의 변화는 곧 세계관의 변화인데, 세계관의 변화 속에서도 인격천의 세계관에서 작성된 복서와 『주역』이 꾸준히 존중받은 이유가 궁금하다.

이 외의 의문들을 뒤로하고 이번 공부에서 나는 무관심했던 조선의 유학이 어찌면 변천했던 중국 유학사의 마지막 목적지일 수도 있다고 느꼈다. 특히 『주역』에 대해 정약용이 자료를 집대성하여 훈고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조선 유학도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유학을 독창으로 탐구한 유학사의 열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VIII. 참고문헌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52집, 2018년.

朱伯崑 저, 김학권 역, 『주역산책』, 예문서원, 2011년.

『易學緒言』, 「卜筮通義」, 한국고전종합DB.

『禮記』, 「王制」.

『史記』, 「太史公自序」.